

묘법연화경, 제16 여래수량품 (자아게)

自我得佛來	자아득불래	내가 성불로부터
所經諸劫數	소경제겁수	지내 온 모든 겁수는
無量百千萬	무량백천만	한량 없는 백천만
億載阿僧祇	억재아승지	억재 아승지라.
常說法教化	상설법교화	항상 법을 설하여
無數億衆生	무수억중생	수없는 억만 중생을 교화하여
令入於佛道	영입어불도	불도에 들게 함이니라.
爾來無量劫	이래무량겁	이와 같이 하여 옴이 한량 없는 겁이니,
爲度衆生故	위도중생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는 고로
方便現涅槃	방편현열반	방편으로 열반을 나타냄이나,
而實不滅度	이실불멸도	그러나 실은 멸도하지 않고
常住此說法	상주차설법	항상 이에 머물러 법을 설함이니라.
我常住於此	아상주어차	내가 항상 이에 머물러 있어,
以諸神通力	이제신통력	모든 신통력으로
令顛倒衆生	영전도중생	전도된 중생으로 하여금
雖近而不見	수근이불견	비록 가깝게 있으나 보이지 않게 하노라.
衆見我滅度	중견아멸도	중생이 나의 멸도함을 보고
廣供養舍利	광공양사리	널리 사리에 공양하며
咸皆懷戀慕	함개회연모	다 연모의 마음을 품어
而生渴仰心	이생갈앙심	갈앙하는 마음을 냄이라.
衆生旣信伏	중생기신복	중생이 이미 신복(信伏)하여
質直意柔軟	질직의유연	질직(質直)해서 뜻이 부드러워
一心欲見佛	일심욕견불	일심(一心)으로 부처님을 친견(親見)하고자
不自惜身命	부자석신명	스스로 신명(身命)을 아끼지 아니함이라.
時我及衆僧	시아급중승	이 때 나와 여러 중승(衆僧)이 함께
俱出靈鷲山	구출영축산	영축산(靈鷲山)에 나와
娥時語衆生	아시어중생	내가 중생(衆生)에게 말하되,
常在此不滅	상재차불멸	항상 여기에 있어 멸(滅)하지 아니하건만,

以方便力故	이방편력고	방편력(方便力)을 쓰는고로
現有滅不滅	현유멸불멸	멸(滅)과 불멸(不滅)이 있음을 나타내노라.
餘國有衆生	여국유중생	다른 나라 중생이
恭敬信樂者	공경신락자	공경하고 믿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我復於彼中	아부어피중	나는 다시 그들 가운데서
爲說無上法	위설무상법	위없는 법을 설하건만,
汝等不聞此	여등불문차	너희들은 이를 듣지 못하므로
但謂我滅度	단위아멸도	다만 내가 멸도했다 생각하느니라.
我見諸衆生	아견제중생	내가 모든 중생을 보니,
沒在於苦惱	몰재어고뇌	고해(苦海)에 빠져 있음이라.
故不爲現身	고불위현신	이런고로 몸을 나타내지 않고
令其生渴仰	영기생갈양	그들로 하여금 갈양하는 마음이 나게 하여,
因其心戀慕	인기심연모	그 마음이 인(因)이 되어 연모케하고
乃出爲說法	내출위설법	나와서 법을 설하느니라.
神通力如是	신통력여시	신통력이 이와 같아서
於阿僧祇	어아승지	아승지겁에
常在靈鷲山	상재영축산	항상 영축산과
及餘諸住處	급여제주처	다른 모든 곳에 있노라.
大火所燒時	대화소소시	큰 불에 타려할 때에도
衆生見劫盡	중생견겁진	중생이 겁(劫)이 다하여
我此土安穩	아차토안온	나의 이 땅은 안온(安穩)하고
天人常充滿	천인상충만	천인(天人)이 항상 가득 참이라.
園林諸堂閣	원림제당각	원림과 모든 당각은
種種寶莊嚴	종종보장엄	가지가지 보배로 장엄되고
寶樹多華果	보수다화과	보배나무에는 꽃과 열매가
衆生所遊樂	중생소유락	많아 중생이 즐거이 놀 곳이니라.
諸天擊天鼓	제천격천고	모든 하늘이 하늘북을 치고,
常作衆伎樂	상작중기악	항상 여러 가지 기악을 지으며
雨曼陀羅華	우만다라화	만다라의 꽃을 내려

散佛及大衆	산불급대중	부처님과 대중에게 흠음이라.
我淨土不毀	아정도불취	나의 정도(淨土)는 헐리지 않건마는
而衆見燒盡	이중견소진	중생은 불에 다 타니
憂怖諸苦惱	우포제고뇌	근심과 두려움과 모든 괴로움이
如是悉充滿	여시실충만	이같이 가득 참을 봄이라.
是諸罪衆生	시제죄중생	이 모든 죄의 중생은
以惡業因緣	이악업인연	악업의 인연으로
過阿僧祇劫	과아승지겁	아승지겁이 지나도록
不聞三寶名	불문삼보명	삼보(三寶)의 이름조차 듣지 못함이라.
諸有修功德	제유수공덕	모든 공덕을 닦아
柔和質直者	유화질직자	부드럽고 화하여 질직한 자는
則皆見我身	칙개견아신	다 나의 몸이 곧 여기에 있어
在此而說法	재차이설법	설법함을 봄이니라.
或時爲此衆	혹시위차중	어느 때는 이 중생을 위해
說佛壽無量	설불수무량	부처님의 수명이 한량 없다고 설하며
久乃見佛者	구내견불자	오랫 동안 부처님을 친견하는 자에게는
爲說佛難值	위설불난치	부처님을 만나기 어렵다 설하느니라.
我智力如是	아지력여시	나의 지력(智力)은 이와 같아서
慧光照無量	혜광조무량	지혜(智慧)의 광명(光明)으로 한량 없이 비치고
壽命無數劫	수명무수겁	수명(壽命)이 수없는 겁(劫)이니,
久修業所得	구수업소득	오랫 동안 업(業)을 닦아 얻은 바이니라.
汝等有智者	여등유지자	너희들 지혜 있는 자는
勿於此生疑	물어차생의	여기에 의심을 내지 말라.
當斷令永盡	당단영영진	마땅히 죄업을 끊어 영원히 다할지니
佛語實不虛	불어실불허	부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헛됨이 없노라.
如醫善方便	여의선방편	마치 의원이 좋은 방법으로
爲治狂子故	위치광자고	미친 아들을 다스리기 위하는고로
實在而言死	실재이언사	살아 있건마는 죽었다 말하되
無能說虛妄	무능설허망	허망이라 하는 자 없음과 같이,

我亦爲世父	아역위세부	나도 또한 세상의 아버지가 되어
救諸苦患者	구제고환자	모든 고통을 구하는 자라.
爲凡夫顛倒	위범부전도	전도(顛倒)된 범부(凡夫)를 위해
實在而言滅	실재이언멸	실은 있건마는 멸(滅)한다고 말함이니라.
以常見我故	이상견아고	항상 나를 보는 까닭으로
而生驕恣心	이생교자심	교만하고 방자한 마음을 내며
放逸著五欲	방일착오욕	방일(放逸)하고 오욕(五欲)에 착해서
墮於惡道中	타어악도중	악도(惡道) 중에 떨어지기 때문이니라.
我常知衆生	아상지중생	나는 항상 중생이
行道不行道	행도불행도	도(道)를 행하고 행치 아니함을 알아서
隨應所可度	수응소가도	응하여 제도될 바를 따라
爲說種種法	위설종종법	가지가지 법을 설함이니라.
每自作是念	매자작시념	매양 스스로 이같은 생각을 하되,
以何令衆生	이하영중생	"어떻게 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得入無上道	득입무상도	무상도(無上道)에 들어
速成就佛身	속성취불신	속히 불신(佛身)을 이룩하게 할까" 하노라.